

진도 '은빛멸치 정보화 마을' 조성

의신면 수풀리에 3억원 투입

PC보급·정보콘텐츠 등 구축

진도군은 4일 의신면 수풀리에 '은빛멸치 정보화 마을'을 조성한다 고 밝혔다.

군은 정보화마을을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정보센터, 정보콘텐츠구축, 참여기구별 PC보급 등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보화마을은 전남도와 행정자치부가 현지 확인 등의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국 11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전남도내에서는 진도군의신면 수풀마을 한 곳이 선정됐다. /진도=박현기자 hypark@

무안 소각로 폐열 난방시설 준공

파프리카 재배 등 활용 소득증대 기대

무안군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설 사업이 준공됐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으로 삼향면 유교리(주남해환경의 소각로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완공해 본격 기동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폐자재 등을 처리하는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을 고환기를 거쳐 1천t의 축열조에서 물을 데워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순환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유교리 9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국비 6억7천만원과 군비 1억4천500만원, 자부담 1억4천500만원 등 모두 9억6천만원을 들여 완공됐다.

이 시설은 가동으로 9가구의 시설하우스 9천780평의 난방비용 연간 2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번 사업 참여 농가들은 그동안 난방문제로 시도하지 못했던 고온의 수출작물인 파프리카 재배를 시도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5~6개월

수풀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바다낚시 체험, 웨딩등산체험 등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화를 통해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정보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마을은 '은빛멸치'를 테마로 민수 있는 맛 좋고 질 좋은 멸치, 홍새우, 김, 미역, 전복, 오징어, 토끼, 다시마, 활터 등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박현기자 hypark@



무안군이 삼향면 유교리에 전국 처음으로 완공한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이 축열조 옆으로 따뜻한 물을 옮기는 이중관로가 지나고 있다.

동안 난방효과 등을 정밀하게 검증한 뒤 실효성이 입증되면 이 같은 시설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전공노 신안군지부, 직원 유가족돕기 전개

'1인 1만원 모금운동' 등

전국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신안군지부는 24년 동안 공직생활에 혼신해 오다 최근 지병으로 사망한 고 최춘산(54) 조합원의 유가족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 700

여 직원들은 '1인 1만원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신안군지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조합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서로 돋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역 소화물 취급 폐지 '반발'

주민들 "물류비 4배이상 늘어 농수산물 경쟁력 약화"

철도공 '택배 일반화 年 평균 적자 400억 애물단지'

전남 서남권 농수산물의 대도시 수송 역할을 하고 있는 목포역의 철도 소화물 취급업무가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자 목포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목포시 동명동 건물 상인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1988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철도 소화물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5월 초부터 목포역 소화물 취급이 폐지돼 물류비 증가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미역과 김 등 해산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철도 소화물보다 4배 이상 비싸 이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자(56·동명동)씨는 "목포역 소화물을 이용해 서울 등 대도시 거래처와 저렴한 요금으로 신속하게 물건을 보냈는데 소화물이 폐지되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택배가 일반화되면서 철도 소화물 수송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최근 5년간 연 평균 적자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4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철도 소화물을 존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시는 "철도공사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소화물 사업을 완전 폐지로 함에 따라 이제 막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존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지역 단신 /
산림청 영암지소 '산불진화헬기' 배치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영암지소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계속됨에 따라 '산불진화헬기'를 제주도를 비롯해 전남 동부권 3개시(광양, 여수, 순천)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관할지역 일대에 오는 9일까지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영암지소는 광양시 실내체육관 옆 공터에 산불진화 주력기종인 항공기 1대(ka-32t·사진)와 유조차를 전진배치해 광양, 순천, 여수 일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전남 동부권의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낙현 산림항공관리소 영암지소장은 "중형헬기를 이용, 산불공중감시 및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야간 및 휴일정비를 실시해 헬기 기동률을 극대화 하는 등 장비와 인원을 총 동원,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목포 '균특회계사업' 국비확보 나서

목포시가 전남도를 방문,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2007년도에 추진하는 46개 지역 현안사업 가운데 삼학도 복원화 사업 등 20개 계획사업(262억원),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사업 등 26개 신규사업(628억원) 사업비 총 892억원의 반영을 전남도에 요구했다.

국비확보를 위해 직접 나선 정종득시장은 지난달 30일 전남도를 방문, 박준영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내년도 현안사업 가운데 '해양음악 분수대 설치',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확대', '유스호스텔 건립', '웅당배수펌프장 신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원도심 중심상가 현대화 사업' 등을 반드시 국비가 반영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박 지사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벚꽃길 걸으며 '한류 원조' 왕인 속으로!

'영암 왕인문화축제' 8~11일

군서면 유적지 일원 행사 다채

'2006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오는 8일부터 4일간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연다.

'영암왕인문화축제준비위원회'는 "1천600여년 전 전자문과 녹어 등을 일본에 전파해 아스카문화를 꽂고 피운 왕인박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한류얼풍, 왕인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8~11일 10회 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 축제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번 축제에서는 100리 벚꽃길에서 주제 행사 10종, 체험행사 13종, 전통문화 행사 5종, 공연행사 14종 등 모두 52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날인 8일에는 '왕인박사 춘향대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리



한류얼풍, 왕인 속으로! 벚꽃 속으로! 오는 8일~11일까지 2006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왕인청풍'(王仁青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005년 축제 중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모습>

는 '오래된 미래, 왕인' 공연과 일본연극연기념물 수양벚나무 헌수에 이어 태극정원 개장식 등이 열린다.

9일에는 영암 속의 백제문화와 아스카문화의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와 영암의 온 고을이 직접 참여해 속대를 깎고 세워 숲을 조성하는 '솟대 난장'이 펼쳐진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타일에 추억과 소망 새기세요"

'목포해양축제' 때 3천명 대상
'소망의 벽'에 부착, 영구 보존

갓바위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소망의 벽에 소망과 추억이 담긴 타일을 부착한다.

타일에 소망 새기기 행사는 축제기간 중 한국산업 도자전시관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착순으로 330명을 선정, 축제기간 중 총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해양문화축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는 '오래된 미래, 왕인' 공연과 일본연극연기념물 수양벚나무 헌수에 이어 태극정원 개장식 등이 열린다.

또 목포해양문화축제 홈페이지

(festival.mokpo.go.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사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소망과 추억이 새겨진 타일은 1천 300도에서 구운 후,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앞에 세워질 '소망의 벽'(높이 2.7m, 길이 18m)에 부착되어 영구히 보존하게 된다.

/목포=이상현기자 lsh@

"타일에 추억과 소망 새기세요"

'목포해양축제' 때 3천명 대상

'소망의 벽'에 부착, 영구 보존

(festival.mokpo.go.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사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소망과 추억이 새겨진 타일은 1천

300도에서 구운 후, 한국산업도자전

시관 앞에 세워질 '소망의 벽'(높이 2.7m, 길이 18m)에 부착되어 영구히 보

존하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81-3939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동여수 653-8444	무 안 452-8535	나 남부 334-6969
광 양 792-8111	해 남 534-5151	순 청 374-4423
보 성 853-9700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순 천 746-8111	영 광 351-1004	충 앙 383-8111
고 흥 835-2436	신 안 243-3758	경 앙 473-2340
녹 동 842-2121	진 도 543-0100	충 신 863-8822
구 레 783-8111	강 친 433-8355	고 청 564-1919
곡 성 362-8111	합 평 324-8111	전 청 653-6155

도지마도	목포시	전주시
• 광산구 생활용 일반주거지역 162평	• 광주 대포동 일반주거지역 162평	• 광주 남동구 신대동 배수시설 162평
• 동구 60평 4층 건물 2층	• 광주 대포동 일상주거지역 162평	• 광주 남동구 신대동 배수시설 162평
• 광주 70평 4층 2층	• 광주 대포동 일상주거지역 162평	• 광주 남동구 신대동 배수시설 162평
• 광주 70평 4층 2층 170평	• 광주 대포동 일상주거지역 162평	• 광주 남동구 신대동 배수시설 162평
• 광주 70평 4층 2층 214평	• 광주 대포동 일상주거지역 162평	• 광주 남동구 신대동 배수시설 162평
• 광주 70평 4층 2층 214평	• 광주 대포동 일상주거지역 162평	• 광주 남동구 신대동 배수시설 162평
• 광주 70평 4층 2층 214평	• 광주 대포동 일상주거지역 162평	• 광주 남동구 신대동 배수시설 162평
• 광주 70평 4층 2층 214평	• 광주 대포동 일상주거지역	